

■ 광주의료관광 소식

○ 개원 6周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중병 승격 목표”

[2020. 02. 07(금), 데일리메디]



개원 6주년을 맞이한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신석)이 종합병원 승격 등 지역거점병원으로의 도약에 총력을 기울인다.

빛고을전남대병원은 개원 6주년인 지난 5일 당초 개원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취소하고, 간부회의를 통해 간단히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신석 병원장은 “빛고을전남대병원은 개원 6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전문질환센터로 위상을 굳혔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제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빚고을전남대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재도약 할 때”라고 강조했다. 종합병원 승격은 빚고을전남대병원의 올해 최우선 목표다.

현재 빚고을전남대병원은 정형외과·류마티스내과·노년내과·신장내과·호흡기내과·소화기내과·순환기내과·감염내과·알레르기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신경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 등 20여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다.

또 응급실·수술실·입원실·의무기록실·물리치료실·회복실 등의 시설도 충족돼 있어, 기타 몇 가지 사항만 갖추면 종합병원의 자격을 충분히 갖게 된다.

올해 빚고을전남대병원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진료수의 증대와 조직 운영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향후 용역결과 보고와 전략 체계 수립 및 실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미래 청사진이 구체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전문질환센터로 개원한 빚고을전남대병원은 관절염 전문 치료뿐만 아니라 일반 질환 치료도 가능할 수 있도록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를 추가 개설하고 응급실을 신설하는 등 폭넓은 진료를 펼쳐왔다.

그 결과, 인턴수련병원으로 지정되는 값진 결실을 맺었으며 지역거점병원의 역할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 진료협력, 진료·검사에약 단축, 병상이용률 증대 등 진료 활성화를 위한 혁신을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도 거뒀다.

빚고을전남대병원은 개원 당시 8만여 명이었던 환자 수가 지난해에는 두 배를 넘는 17만명에 달했다. 수술 건수도 2014년 1445건에서 지난해 1879건으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조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노인들을 위한 건강강좌와 의료봉사도 적극 시행해 왔다.

이신석 병원장은 “이곳 병원은 국내 최고 연구역량을 갖춘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시

스텝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 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종합병원 승격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료가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지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국내 의료 발전에도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출처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2583&thread=22r02>

■ 광주 소식

○ 광주시 ‘전일빌딩’ 시민복합문화센터로 탈바꿈

[2020. 02. 10(월), 동아신문]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7일 전일빌딩245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해 시민 문화공간과 5·18민주화운동 기념공간 등을 살펴보고 시민들의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 제공

5·18민주화운동 등 광주의 역사 현장인 전일빌딩이 4월 시민 복합문화센터로 탈바꿈해 개방된다.

광주시는 이달 중에 전일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4월 초 개관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사업비 484억 원을 투입해 매입 및 리모델링한 건물의 새 명칭은 ‘전일빌딩245’이다. 이는 시민들에게 고유명사처럼 알려진 전일빌딩과 그 가치를 함축한 숫자인 245를 합친 것이다. 정현운 광주시 문화시설기획담당은 “5·18사적지 28호인 전일빌딩은 건물 도로명 주소가 광주 금남로 245이고 10층과 외벽에는 5·18 당시 헬기 사격에 의해 남겨진 총탄 자국 245개가 있다”고 설명했다.

옛 광주 도심 중심가에 있는 전일빌딩은 1960~80년대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어서 상징성이 컸다. 1968년 1차 준공된 전일빌딩은 이후 세 차례 증축돼 대지면적 2778㎡, 연면적 1만9321㎡, 지하 1층, 지상 10층이다.

전일빌딩은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이기도 하다.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전일빌딩 앞에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집단 발포해 60여 명이 다치거나 숨졌다. 1980년 5월 27일 새벽에는 계엄군이 시민군 진압작전을 벌였던 곳이다.

이형주 기자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09/99609450/1>